

나주시 500만 관광도시 실현 박차

다음 달 26일 나주방문의 해 선포
숙박 인센티브 등 머무는 관광 전환
안세영·안유성 등 홍보대사 위촉

나주시가 2026년을 '나주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숙박과 관광,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전략을 본격 추진해 5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관광객들이 당일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머무르며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숙박 인센티브와 관광 콘텐츠, 연중 축제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계한 방문의 해 핵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오는 2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며 선포식에서는 방문의 해 비전 발표를 비롯해 홍보대사 위촉, 관광 관련 기관과의 나주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보대사로는 나주 영산포 출신의 세계적인 배

드민턴 선수 안세영, 나주 반남면 출신으로 드라마 '자이언트'와 '지붕뚫고 하이킥' 등으로 사랑을 받은 배우 정보석,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이자 흑백요리사 시즌 1에 출연했던 안유성 세프가 위촉돼 나주 관광 홍보에 힘을 보탠다.

대표 체류형 관광 사업으로는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나주 1박 2일'을 운영하며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여행의 만족과 실질적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취지다.

인센티브는 동행 인원에 따라 2~3인은 5만원, 4~5인은 10만원, 6인 이상은 13만원을 지급하며 아동 동반 시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업은 시스템 구축과 사전 점검을 거쳐 2026년 3월 1일 이후 숙박한 여행분부터 인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세부 기준은 2월 중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현장 지급과 온라인 지급으로 이원화 시켜 현장 지급은 나주사랑상품권 지류형으로 제공해 여행 중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즉시 이어지

도록 유도했으며 온라인 지급은 '나주몰' 사용 포인트로 지급해 방문 이후에도 나주 농특산물 소비가 이어지도록 구성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특히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 동반 추가 지원과 연계한 가족 관광 활성화에도 나서며 한 달 간 아동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키즈관광 특화 공간을 조성해 체험형 콘텐츠와 포토존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주방문의 해'를 주제로 한 숏폼 영상 경진대회 추진을 통해 관광객이 직접 나주의 관광명소와 축제, 체험 콘텐츠를 활용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확산 효과를 높이고 시민 참여형 홍보 기반을 구축한다는构상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6 나주방문의 해는 단기 이벤트가 아닌 나주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을 도시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고 문화와 산업, 생활이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여성농업인 4166명 행복바우처 30만원씩 지원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접수

담양군이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에 나선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166명으로 지난 해보다 확대됐다. 군은 도비 2억3500만 원과 군비 10억15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연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이하(1946년~2006년 출생자) 여성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전업 직업을 가진 자, 2024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도비 지원분 20만원의 경우 본인 명의의 NH농협체움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군비 주가 지원분 10만원은 지역화폐인 담양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다음 달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금 된 포인트는 올해 12월 말까지 문화, 예술, 보건 등 관련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군이 기후와 자연재난에 따른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후대비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노후 하우스 '내재해형'으로 바꾼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개선 추진

단동→연동 전환 구조 보완 지원

강진군이 급변하는 기후와 자연재난에 따른 농업재해를 줄이고 농산물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비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폭염과 집중호우, 강풍, 폭설 등이 산기후가 해마다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에 취약한 노후 비닐하우스를 구조적으로 보강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시설원에 재배 농가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하우스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진군 기후 내재해형 조건은 적설 24cm, 풍속 34m/s 수준이다.

단동형 하우스를 연동형으로 전환하거나, 측고 인상, 천장 및 측면 개폐시설 설치 등 통풍과 열기 배출이 원활하도록 구조를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설물의 내재해 성능 자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총 2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원은 군비 50%, 자부담 50%로 구성된다.

윤문은 강진군 농정과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기존 비닐하우스 구조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기획했다"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보조사업을 통해 강진 농업의 기후 대응력을 높이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인증구역 (㎢)
총면적 (㎢)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장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 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연에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철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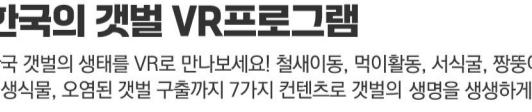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는 특이ティ적체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새들의 휴식처인 사하와 암반서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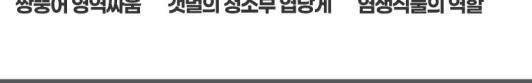
갯벌 위에 출추는 무희, 사취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층도요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평원에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업무개

염생식물의 역할

•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VR로 만나는 생태 교육 체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 유산

www.getbolworldheritage.org

2027년 국고 건의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

일시 2026. 1. 21.(수) 09:00 장소 함평군청 소회의실



지난 21일 이상의 함평군수 주재로 '2027년 국고 건의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내년 국비 확보 시동…953억원 건의

국고 건의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

장기반 확충과 신산업 육성, 재난·재해 예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계속사업으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원 건립(424억원)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371억원)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 활력 증진사업(100억원) 등 24건이 반영됐다. 군은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이번에 발굴한 국고 건의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스마트 농축산업 기반 강화,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지역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정부 예산안 반영과 국회 심의 단계 증액까지 전방위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1000명 돌파

상반기 중 주거비 지원도 추진

장성군이 민선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지난 2023년부터 대학생 가정의 학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등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납입부채를 학기당 200만 원 한도로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보호자 모두 3년 이상 장성군에 살고 있는 가정의 학생이며, 대학 학제 기준 마지막 학년 재학생(4학년, 30세 이하)에게 월세·기숙사비 실비를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올해 들어